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이규철 군종목사

I. 들어가는 말

어거스틴의 결혼관은 그의 회심¹⁾이 낳은 일련의 결과이다. 곧 회심한 어거스틴은 철저한 금욕주의적 삶²⁾을 살았다. 회심한 어거스틴이 철저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어거스틴이 당시 교회의 금욕주의적 전통³⁾을 진지하게 수용했음을 시사한다. 회심한 어거스틴의 금욕적 삶에 대한 결단은, 그의 「고백록」에 명확히 표명된다.

- 약력 :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 D.)
• CBS방송 설교가, 육군 군목

이제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로 전향하게 하셨으니, 나는 아내
나 세상의 어떤 다른 희망도 찾지 않기로 하였습니다.⁴⁾

- 1)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도모하는 국내 저술로는 논자가 저술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서울: 쿤란출판사, 2001)이 유용함. 아울러 본고에서의 어거스틴의 금욕주의에 대한 논의는 위 도서에 많이 의존했음을 밝혀둬.
- 2) 어거스틴의 금욕주의적 삶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이 유용하다. Elizabeth A. Clark, "Theory and Practice in Late Ancient Asceticism",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5(2) (1987): 25-46; Matthew Baasten, "Humility and Modern Ethics", *Reformed Review* 38(1) (1984): 232-237; Philip Rousseau, "The Spiritual Authority of the 'Monk-Bishop' Eastern Elements in Some Western Hagiography of the Fourth and Fifth Centuries", *Journal Theological Studies* 22 (1971): 380-419.

- 3)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친 당시 교회의 금욕주의적 전통은 세 갈래 방향에서 검토된다.

첫째, '로레인 보트너'(Loraine Boettner)에 따르면, 어거스틴 당시의 전체적 생활 분위기는 스토의 사상(Stoicism)과 유대교를 통해서 도덕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생활을 강조한 결과 도덕주의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은 차츰 희미하게 되어 갔다고 한다. 이 같은 당시 교회의 경향은 행함과 공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고 때문에 사도 후 교부들의 저작에서 의인(義認)사상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보트너는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지옥에 이르는 치명적 죄(mortal sin)와 선행이나 참회에 의해서 말소되는 가벼운 죄(venial sin)들을 구별해 나가기 시작했고 이 같은 도덕주의 죄관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금욕주의를 격려하며, 권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트너는 언급한다. Loraine Boettner, *Roman Catholicism*(New Jersey: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3), 218.

둘째, '찰스 허브만'(Charles G. Herbemann)에 따르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친 당시 교회의 금욕주의적 경향은 범한 죄에 대한 참회와 배상의 교리를 통해 발전된 것이라고 본다. 곧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임종시에 회개하여 현생에서 속죄의 참회행위를 행할 시간을 갖지 못한 자들이, 내세에서 '정화시키는 불'에 의해 성화

윌리엄 플래처(William C. Placher)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회심시 고백된 이 결단은 "이교(異敎)의 불결한 생활로부터 기독교의 윤리적 표준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되는 당시 교회의 금욕주의적 전통의 수용이었다.⁵⁾ 플래처의 지적처럼, 회심을 통해 통전적 삶의 변화를 갖게 된 어거스틴은 과거 이교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정화시키는 불'의 개념은 오리겐(Origen)이 더욱 발전시켰다고 허브만은 본다. 그리고 사후 내세에서의 정화 또는 형벌사상과 함께 현세적인 참회와 배상의 교리는 범죄한 후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의지하는 대신, 배상과 공로의 행위를 의지하게 했고, 이러한 경향성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으로서 간주하게 된 요인이 된다고 허브만은 지적한다. Charles G. Herbemann, *The Catholic Encyclopaedia*, vol. xii(New York: The Universal Knowledge Foundation Inc., 1913), 577.

셋째, 윌리스톤 워커(Williston Walker)에 의하면, 당시 교회의 속화(俗化)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던 복음의 이중적 도덕 표준이 필연적으로 교회를 금욕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고 본다. 곧 터틀리안과 오리겐 같은 이들은, 복음이 명령과 조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가르쳤다고 워커는 지적한다. 그리고 터틀리안과 오리겐의 이러한 성서해석의 경향은, 복음서에 나타난 조연들, 예를 들어 구제나 독신에 대한 말씀들을 모든 신자들이 다 명령으로 받을 수는 없으나 이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빈곤과 독신의 정신은 초대교회 금욕주의의 기반이 되었고 또한 수도원 탄생 배경이 된다고 워커는 평가한다.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95.

- 4) Augustine, *Confessions*, VIII. 12. 30., in NPNF(Schaff, Philip.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Buffalo: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6) vol. 1. 이하 Confessions는 Conf.로 표기한다.

- 5) William C.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112-113.

에 머물렀던 그의 죄성(罪性)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의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질을 선언한다. 어거스틴의 그 선언은 금욕주의에 대한 선언이었고, 동시에 그는 금욕적 삶을 살았다.

문제는 회심한 어거스틴이 금욕적 삶을 추구했다면 결혼을 부정했을 수도 있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caritas) 안에서 독신과 순결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독신 우위성의 입장을 견지한 어거스틴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결혼을 축복했다. 이는 어거스틴이 결혼을 선택⁶⁾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어거스틴의 결혼관에 의문이 생긴다. 과연 어거스틴이 견지한 금욕주의적 삶과 결혼은 어떤 이해와 연관성을 형성하는가? 어거스틴은 어떤 조건과 명분 하에 그의 금욕적 경향에서 결혼을 인정했는가? 그리고 어거스틴의 결혼관이 그의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아가 그의 결혼관이 오늘날 급격한 가족 해체의 위기 속에 처한 현 한국 사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금욕주의 입장을 견지한 어거스틴이 가졌던 결혼관의 본질을 파악함을 그 일차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회심한 이들이 갖는 결혼의 의미를 어거스틴의 신학의 빛에 비추어 규명하고자 한다.

6)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결혼이 선택한 것은 그 선이 출산, 신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제, 그리고 항구적인 결합이기 때문이다. Augustine, *De Bono Coniugali*, 15., in NPNF., vol. III.

II. 금욕주의적 삶의 배경으로서의 '사랑'

삶의 여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을 통해 짐작컨대, 그는 일생 동안 애욕의 인간으로 살아왔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의 여정에서 추구된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질(質)이 달랐다⁷⁾. 특히 회심한 어거스틴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는 데 있음을 밝힌다.

나의 사랑이란 나의 무게입니다(Pondus meum amor meus).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나는 사랑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당신의 선물인 성령으로 인하여 불붙어 위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 불에 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당신의 좋은 뜻은 거기에 거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시 23:6)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⁸⁾

하나님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한 어거스틴은 그로 하여금 본질적 안식을 찾아 움직이게 하는 무게를 사랑이라

7) 회심 전 어거스틴은 수사학 교사로서의 명예를 사랑하며 정욕을 탐닉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회심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거스틴의 삶의 모습은 외적인 모든 것의 포기과 함께, 그 본성과 내면적 상태에 있어서 경건한 금욕주의적 삶을 추구한다. 회심한 어거스틴이 이처럼 금욕주의적 삶을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8) Conf., VIII. 9. 10.

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사랑은 대상을 향유하려는 의지의 핵심이다.⁹⁾ 결국 어거스틴의 사고에서는 인간의 의지의 핵심으로서의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어거스틴은 사랑이 지향하는 대상의 관점에서 질서(ordo)를 전제로 사랑을 두 가지 양태로 구분한다.

A. 사용(uti)과 향유(frui)

어거스틴의 사용과 향유로서의 사랑 개념은 사랑이 지향하는 대상의 관점에서 질서(ordo)를 전제로 구분한 사랑의 양태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시에 부여된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부여자가 된다.¹⁰⁾ 어거스틴은 질서의 부여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각 존재의 계층이 향유할 대상과 사용할 대상을 구별하지 못

9) 로츠(J. Lotze)는 “사랑은 그 대상을 향유하려는 영혼의 움직임입니다”(De doc. chr., III 15.)는 어거스틴의 말을 평가하기를 “사랑이란 인간이 지닌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고 그 에너지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는 힘이기도 하며, 또는 그 에너지들을 선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나 혹은 악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능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로츠의 평가와 같이, 사랑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대상 혹은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인간 의지의 본질적 요소라고 어거스틴은 이해한다. J. Lotze, *Die drei Stufen der Liebe*(Frankfurt: Joseph Knecht Verlag, 1971), 19-20.

10) Augusine, *De lib. arb.* III vi. 18., in LCC.(Albert C. Outler e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vol. VI.

하면, 그 사랑은 왜곡된다고 지적한다.¹¹⁾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사랑하는 대상에 주의하십시오. 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진정한 사랑(carita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인간에의 사랑은 욕정(cupidita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정은 억제하고, 진정한 사랑을 격려해야 합니다.¹²⁾

어거스틴의 이 생각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향해 향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사이의 구분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어거스틴은 인간이 진정으로 향유해야 할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만일 사람들이 너를 즐겁게 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변하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확고하여 요동하지 않는다.¹³⁾

어거스틴은 이상의 언급을 통해, 하나님만을 참다운 목적으로서 사랑(frui)해야 하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에 대해서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uti)해야 하며, 나아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웃을 목적으로 사랑하면서도 더

11) Augustine, *De civ. Dei*. XV. 22. in NPNF. vol. II.

12) Conf., I. 4. 4.

13) Conf., IV. 12. 18.

고차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종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리하면, 어거스틴의 사용(uti)과 향유(frui)로서의 사랑은 사랑이 지향하는 대상의 관점에서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의 양태이다. 이에 어거스틴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각 존재의 계층이 향유할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왜곡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사랑의 당사자인 인간이 궁극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유한다면 그는 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반대로 세상의 피조물을 향유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왜곡된 사랑으로서의 악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B. 바른 사랑(caritas)과 왜곡된 사랑(cupiditas)

어거스틴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유함으로써 행복해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유함으로 갖는 행복은 향유해야 할 대상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는 바른 사랑(caritas)에 기초한다. 이에 어거스틴은 “내 안에서 사랑을 정돈해 주소서”(Ordinate in me caritatem)라는 기도으로써, 하나님께 바른 사랑을 요청한다.¹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바른 사랑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물들을 온전히 보는 사람은 의롭고 거룩하게 보는 사람이다. 그는 또한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일 없고

덜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할 것과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할 것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일이 없는 자이다.¹⁵⁾

어거스틴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질서를 지켜 자기 존재의 계층에 따라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바른 사랑이라고 한다. 반면에, 질서에 어긋나게 사랑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이라고 언급한다. 특히 왜곡된 사랑은 향유(frui)해야 할 대상을 사용(uti)하고 사용(uti)해야 될 대상을 향유(frui)하는 것은 가치의 질서에 어긋나게 사랑하는 무질서한 사랑으로서, 자기사랑(amor sui)과 세상사랑(amor mundi)이 왜곡된 사랑에 속한다고 어거스틴은 지적한다. 특히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왜곡된 사랑은 절대적인 선을 향하고 있지 않는 선의 결핍으로서의 탐욕이다.¹⁶⁾ 어거스틴은 인간의 왜곡된 사랑인 탐욕의 원인이 죄악 된 인간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간이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욕욕(libido)이 악의 구성요소이며, 사악한 의지가 악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어거스틴에 따르면, 왜곡된 사랑이 죄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인간의 지에 기초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교만(superbia)에 의해 가속화된다.

이러한 모든 점을 놓고 볼 때, 저급한 세속적 욕구들을 극복하고 영원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랑의 삶의 변이를 동반하는 회심을 체험한 어거스틴은 자신이 영원토록

14) *De civ. Dei.*, XV. 22.

15) 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I. 28. in NPNF. vol. II.

16) *De civ. Dei.*, XII. 8.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근본적인 삶의 질(質)의 변화를 추구한다. 곧 회심한 어거스틴은 궁극적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유(frui)하는 바른 사랑(caritas)의 삶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금욕주의적 삶의 동기와 배경이 된다.

III. 금욕주의적 삶

회심한 어거스틴은 일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살겠다는 그의 회심시 가졌던 결단을 실행에 옮겨나갔고, 이에 일생 동안 독신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어거스틴은 회심 전 그의 생각 속에 머물렀던 금욕주의적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 가졌던 동경¹⁷⁾을 회심 체험 이후 타가스테 공동체¹⁸⁾를 통해서 실현한다. 결국 어거스틴의 금욕주의는 독신에 대한 옹호와 금욕주의적 공동체를 통해 구체화된다.

17)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로마니아누스(Romanianus)를 비롯한 10명의 친구들을 규합하여 공동생활을 시작하고자 했으나, 공동생활을 위해 뜻을 모으기 위해 서로 토론을 할 때 사적인 생활(기혼자, 약혼자)에 걸려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어거스틴은 언급한다. Conf., VI. 14. 24.

18) 조지 로리스(George Lawless)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388년 타가스테에 귀향 후 그의 친구들, 곧 알리피우스, 호노라투스(Honoratus), 안토니우스(Antonius), 에보디우스(Evodius), 세베루스(Severus), 그리고 무명 3인, 어거스틴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동거하며 조용히 은거하였다고 한다. 타가스테에서, 어거스틴과 함께한 이들의 공동체적 삶이 정식 수도생활이었던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타가스테 공동체를 북아프리카 최초의 수도단으로 평가한다고 로리스는 지적한다. George Lawless, *Augustine on Hippo and His Monastic Rule*(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45.

A. 독신의 우위성

어거스틴은 결혼에 대해 독신의 우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혼의 가치는 진실로 영구히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한 때 율법에 따른 순종의 행위였다. 이제 그것은 연약함에 대한 치료책이며,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성을 달래는 것이다. 암컷과 같이 문란하게 교접하는 개들의 행태에 따르지 않고 결혼의 정당한 법도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관계하는 것은 진실로 한 남자에게 있어서 비난할 만한 감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자체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면 더 칭찬할 만한 방식으로 능가하고 극복하여야 할 감정이다.¹⁹⁾

따라서 어거스틴은 독신생활의 우월성에 대해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녀들을 낳을 수 있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강조한다.²⁰⁾ 독신생활의 우월성에 대해 어거스틴이 이처럼 강력히 집착하는 것은, 결혼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우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표준에

19) Augustine, *De Bono Viduitatis*, 11., in NPNF., vol. III.

20) Augustine, *De Bono Conjugali*, 9. in NPNF., vol. III.

따르면 절제가 성생활보다 낮고 경건한 정절이 결혼보다 낮다”(순결 1)고 주장한다.

틸리히(Paul Tillich)는 어거스틴의 금욕주의적 독신생활을 세상의 감성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을 극복하는 일종의 성화의 원리로 평가한다.

어거스틴 시대에는 성생활이 극도로 퇴폐해 있었는데, 스토아주의도, 신플라톤주의도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없었다....곧 어느 철학도 이를 저지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 철학들이 모두 계율을 설파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것처럼 자연주의적으로 왜곡된 리비도(libido)에 대항하기에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화(聖化)의 원리를 찾아냈다. 곧 어거스틴 자신의 내부와 신플라톤주의에도 있었던 긴장 세계를 긍정하기도 하고 동시에 부정하기도 하는 긴장이 있었다.... 결국 이 같은 점에서 어거스틴의 태도는 분열되어졌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는 가정이나 성생활을 긍정했지만, 신플라톤주의자로서는 성적 인 것을 부정하고 금욕을 칭찬했다.²¹⁾

비검(Thomas J. Bigham)과 몰리겐(Albert T. Mollegen)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독신을 옹호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금욕주의적 삶에 대한 강조는 당시 그가 걸어왔던 삶의 정황과 무

21)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8), 109-110.

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그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삶이 반영된 주제라고 평한다.²²⁾ 하지만 어거스틴의 이런 독신 우위의 금욕적 입장은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그의 관심의 부재라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22) 비검과 몰리겐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독신을 옹호함에는 몇 가지 신학적 함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첫째, 어거스틴은 독신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의 심리적 역정에 영향을 입은 것이며, 동시에 로마제국 사회의 성적 무질서에 대한 교회의 격렬한 견제 속에 어거스틴의 삶의 자리가 위치해 있음을 반영한다고 비검과 몰리겐은 본다. 둘째, 비검과 몰리겐에 따르면, 전하신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는 기독교적 교리를 근거로 한 어거스틴은 창조와 출산이 물질세계에서의 물리적 구현을 통하여 영향을 타락시키는 악이라는 마니교의 동방적 믿음에 반대하는 입장에 분명히 서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순결한 것이든, 방탕한 것이든, 결혼하지 않음을 통해 느끼는 기쁨도 반대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비검과 몰리겐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결혼과 독신에 관한 입장은 기독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는 그의 입장이 성서적이 아닌 신플라톤주의적인 창조와 구축의 철학에 근거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셋째, 독신에 대한 어거스틴의 강조는 육체와 세상을 탈출하는 수단이었음에도 독신적 삶에 대한 그의 견해는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 대한 어거스틴의 관심의 결여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비검과 몰리겐은 지적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인생사의 부침에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된 것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서 있는 어거스틴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해될 수 있다고 비검과 몰리겐은 지적한다. 넷째, 독신의 삶을 권장하는 어거스틴의 금욕주의적 삶은 죄와 선한 삶에 대한 어거스틴의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검과 몰리겐은 평가한다. 곧 어거스틴이 탁월한 도덕가로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사람의 최상의 것을 부패시키는지,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악이 사회적 삶의 선한 질서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바라보고 경고하는 점이라고 비검과 몰리겐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Thomas J. Bigham, and Albert T. Mollegen. "The Christian Ethic." Roy W.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383-386.

B. 수도원 공동체

1. 수도원 공동체 추진 동기

독신의 우위성을 확신한 어거스틴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도모한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적 수도 생활에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386년 아프리카 동료였던 ‘폰티키아누스’(Ponticianus)를 통해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Antony)의 영웅적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였다.²³⁾ 어거스틴은 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수도자의 생활방식에 따라 완전한 포기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칼 수소 프랑크’(Karl Suso Frank)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그가 수도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35절을 해석하면서 ‘한 마음과 한 정신’(cor unum et anima una)의 이상(理想)은 교회의 사람에서는 부족하고 수도원의 삶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²⁴⁾ 따라서 어거스틴이 수도원을 세운 목적이 이를 위해서라고 프랑크는 강조한다. 동시에 프랑크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작성한 수도원 규칙도 전적으로 이 목적과 부합하기 위함이다.

어거스틴은 수도 생활을 통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로 조용히 타오르게 했다. 이석우에 따르면, 수도원적 공동체를 추구한 어거스틴은 엄격하게 교회의 조직과 백

락을 같이하는 수도원이나 아니면 이집트의 수도사처럼 홀로 외로이 고행과 극기의 극단적인 생활을 소망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그는 학자적 은퇴의 삶을 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도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며 기독교적 덕목을 엄격히 지키고 주변을 바르게 읽는 지도적 위치를 지키며 헌신적 자세를 갖춘 삶의 공동체를 원했다.²⁵⁾ 이런 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은 아카데미적 성경의 동방은둔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결합된 자급자족의 공동체를 꿈꾸었다고 이석우는 추정한다.

2. 추진 경과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회심은 386년 여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회심된 그의 영혼의 터전 위에 신학사상이 형성되고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세례 준비를 위해 카시키아쿰으로의 인퇴(引退)시부터²⁶⁾이다. 어거스틴은 그의 카시키아쿰의 인퇴의 시기를 ‘자유로운 여가’(otium leverale)²⁷⁾라고 불렀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의 그의 회심 체험 이후, 밀라노에서 수행하던 수사학 교수직을 사퇴²⁸⁾하기로 결심하고, 베레쿰두스(Verecundus)²⁹⁾가 배려해 준 카시키아쿰의 별장에 어머니 모니카를 비롯한 7명의 동행인

23) Conf., VIII. 6. 14-15.

24) Karl Suso Frank, *Geschichte Des Christlichen Monchtums*, 최형걸 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서울 은성, 1997), 76.

25)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서울: 민음사, 1995), 163.

26) 어거스틴의 카시키아쿰으로의 인퇴(引退)는 386년 9월부터 387년 3월 초 사이에 있었다.

27) Augustine, *De Ord.*, I. 2. 4. in LCC. vol. VI.

28) 어거스틴이 수사학 교수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한 동기는 수사학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Conf., XI. 2. 2)와 폐렴으로 추정되는 건강상의 이유(Conf., IX. 2. 4) 때문이었다고 어거스틴은 밝히고 있다.

들과³⁰⁾ 함께 머물렀다. 어거스틴은 카시키아쿰의 이 작은 공동체에 함께 기거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으며, 특히 시편을 읽는 중 감격하여 소리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³¹⁾ 이는 어거스틴이 카시키아쿰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였음을 반영한다.

그런데 카시키아쿰 공동체의 정수는 수사학의 가르침이나 성경적 경건 생활에 있었다기보다는 헬라 고대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가 조우하여 정리되는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어거스틴은 자기와 함께한 이들과 성경연구, 특히 철학적 토의에 몰두하였다. 이 때 이루어진 토의를 속기사가 정리하고, 이것이 어거스틴의 교정과정을 거쳐 책으로 편집되었는데, 이는 「아카데미학과 논박」, 「복된 삶」, 「질서론」 그리고 「독백」 등이다.³²⁾

29) 어거스틴에 따르면, 자신의 친구인 베레쿰두스는 밀라노의 수사학 문법학자였으며, 어거스틴에게 카시키아쿰의 자기 별장을 사용하도록 빌려줄 때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내는 충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397년 어거스틴이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병중에서 세례 받고 그 후 세상을 떠났다고 어거스틴은 진술한다. Conf., IX. 3. 5.

30) 카시키아쿰에서 어거스틴과 함께 기거하며 토론을 하였던 자는 어거스틴과 모니카, 어거스틴의 아들 아데오다투스(Adeodatus), 알리피우스 두 제자 리켄티우스(Licentius)와 트리게티우스(Trygetius) 등이었다.

31) Conf., XI. 4. 8.

32) 데이비드 로버츠(David E. Roberts)에 따르면, 카시키아쿰에서의 토론이 386년 11월 10-12일과 19-21일에 있었던 「아카데미학과 논박」, 11월 13-15일에 있었던 「복된 삶」, 11월 16-18일이나 19-21일에 있었던 「질서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David E. Roberts, "The Earliest Writings", Roy W.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125.

카시키아쿰의 은둔 공동체를 거쳐 387년 봄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어거스틴은 그 다음 해인 388년에 그의 고향인 '타가스테'(Thagaste)에 돌아와서, 양친의 집에서 자신과 친구들³³⁾을 위한 수도(修道)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어거스틴은 사제가 되기까지 이 타가스테에서 청빈과 기도와 봉사, 그리고 많은 사색 속에서 성서 연구와 저술 활동³⁴⁾을 하였다.

이후, 391년에 어거스틴은 뜻밖에도 히포(Hippo)의 사제가 되었다. 그 후, 발레리우스(Valerius)의 뒤를 이어 주교직을 맡게 되었다. '아돌라르 Zumkeller'(A. Zumkeller)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이 모든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도 생활에 대한 이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391년에 히포에 평신도들을 위한 수도원을 설립하였고, 395-396년 사이에 그의 주교관 내에 '성직자 수도원'(monasterium clericorum)을 설립하였다.³⁵⁾

수도원 설립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 같은 정열적인 모습은 그가 평신도에서 사도직에 전념하면서도 수도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의 공동체에 깊이 서 있음을 시사한다. 이 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많은 수도원을 세웠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단순히 그 수도원 공동체에 사는 것만으

33) 타가스테에서의 어거스틴의 초기 수도원에 참여한 자는 알리피우스(Alypius), 에보디우스(Ebodius), 아데오다투스(Adeodatus), 그리고 어거스틴의 형인 나비기우스(Navigius) 등이다.

34) 어거스틴이 388-391년 사이에 저술한 책은 「음악론」, 「교사론」, 「참된 종교」 등이다.

35) A. Zumkeller, *Praeceptum*, 이형우 역,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왜관 분도출판사, 1990), 18.

로 만족하지 않았고, 많은 저술들을 저술함을 통해 수도 생활을 권장³⁶⁾했다.

바로 이 점이 히포에 세워진 어거스틴 수도원의 특징이었다. 곧 이 수도원은 신학교와 헌신자들의 훈련 학교 역할을 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도시의 교회에 목회하러 갔으며, 가는 곳마다 똑같은 형태의 반(半)수도원을 설립했다. 이렇게 하여 어거스틴은 실제로 그가 꿈꾸었던 공동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도원 벽을 세웠다. 그러나 그 벽 너머를 내다보기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상당 부분을 밖에서 보냈다. 결국 어거스틴이 금욕적 삶의 기풍을 유지하면서 추구한 공동체는 학자적 연구가 진행되면서도 그 수도원이 속한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채, 기독교 사상을 축으로 하여 삶의 정황을 정직하게 통찰하는 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삶의 공동체라고 정리할 수 있다.

IV. 결혼관

독신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적 공동체를 이끌어 온 어거

36) 어거스틴은 400년경에 「수도자들의 노동」(*De opere monachorum*)이라는 책을 썼다. 이는 중세 수도 생활의 표어인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Ora et labora)의 실제 기원이 되었다. 401년 어거스틴은 「거룩한 동정」(*De sancta virginitate*)을 저술했는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봉헌된 동정성과 절제에 관한 가르침을 남겼다. 어거스틴의 수도 생활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문헌으로서는 A. Zumkeller, *Augustine's Ideal of the Religious Life*(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86)이 유용하다.

스틴이 결혼³⁷⁾에 대해 갖는 기본적 입장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거스틴은 결혼을 독신에 비해 열등한 삶으로 여김³⁸⁾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³⁹⁾한다.

특히 어거스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이 평생 한 사람과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며, “아내를 여럿 두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난다”⁴⁰⁾고 강조한다. 이에 어거스틴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 그들의 마음에 순결과 절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아내 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잘 간수해

37) 어거스틴은 결혼(matrimonium)의 어원이 어머니(mater)에게서 온다고 이해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와 혼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그는 강조했다. Augustine, *Contra Faustum Manichaeum* 19. 26, in NPNF, vol. IV.

38) 어거스틴이 독신생활의 우월성에 대해 강력히 집착하는 것은, 결혼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수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향한 소망으로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흔쾌히 그분을 섬기고 더욱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고……어린양의 혼인잔치 때 남들이 부를 수 없는 세 찬송을 부를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누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정을 지킨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동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누릴 기쁨과 같지 않다.” Augustine, *De Virginitate*, 28., in NPNF., vol. III.

39) Augustine, *De Bono Conjugali*, 15.

40) Ibid., 17. 어거스틴은 결혼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출생, 낙태, 매춘, 이혼 같은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구예와 약혼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 한다.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가 여러분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순결한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하지 않는 청년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은 타락하지 않은 배우자를 찾는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라.⁴¹⁾

마음에 순결함과 절제를 동반한 혼전 순결을 강조한 어거스틴은 결혼의 성사적(聖事的) 가치를 부각시킨다.

혼인의 결속을 요구하는 까닭은 자녀를 얻는 출산의 목적에 서만도 아니고, 상호 신의를 지키는 절제만을 위해서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혼인 자체의 성사성(聖事性)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는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훈계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성사의 내용이다. 혼인으로 결합된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합시키는 그 유대에 의거하여 혼인을 지속한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가 상호간의 동의로 금욕 중에 살기로 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혼인이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혼인이 육체적 포옹으로가 아니라 두 정신의 자발적인 우애로 다져지기 때문이다.⁴²⁾

이 결혼의 성사성 차원에서, 어거스틴은 성생활⁴³⁾의 자제를

41) Augustine, *Sermons*, 132. 2. in John E. Rotelle ed.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New York: New City Press, 1955).

42) Augustine, *De Nuptiis et Concupiscentia ad Valerium*. 1. 10-11 in NPNF, vol. V.

촉구한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부부들에게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생활의 자제를 강조한다.⁴⁴⁾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는 성관계는 더 이상 이성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른다. 결혼한 사람들이 정욕을 가라앉히고 동요하는 감정을 고정된 규율로 억제하는 절제는 지혜의 기쁨과 반대되는 정욕의 기쁨을 삼가는 것이다.⁴⁵⁾

이에 어거스틴은 가정생활과 그에 딸린 여러 책임이 강렬한 성적 충동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데 유용함을 지적한다.

그들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즉 정욕이 합법적 관계 안에서 해소됨으로써 절도 없이 방만하게 분출되지 않고 좀더 점잖게 표현되고, 부모의 애정에 의해 순화되도록 할 목적으로 결혼한

43) 비검과 물리검은 성관계에 대한 어거스틴의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타락 이전의 성관계는 오로지 번식의 목적만을 위하여 수치스러운 욕욕없이 의지에 굴복하는 것이다. 둘째, 타락 이후에도 결혼은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하게 본질상 선하며, 바로 그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적 인 차이를 두셨다. 따라서 변화된 것은 결혼의 본질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이다. 왜냐하면 타락과 함께 수치스러운 욕욕이 왔다. 셋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교회로 말미암은 번식은 더 이상 신의 계명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낮은 선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좀 낮은 선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낼 것을 모든 사람에게 촉구해야 한다. Thomas J. Bigham and Albert T. Mollegen, op. cit., 383.

44) 어거스틴은 자신의 입장의 근거로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고전 7:29)라는 성경 말씀을 제시한다.

45) *De Nuptiis et Concupiscentia ad Valerium*, I. 9.

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난 관계와 사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의 연약을 붙들어 쥐야 할 책임이 있다.⁴⁶⁾

결국, 어거스틴은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서 세워진 사회적 인간관계로서 인식하면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지지한다. 그리고 결혼이 성례적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선택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혼전 순결과 절제를 당연시하면서, 결혼한 이후에도 과도한 성관계의 자제를 권고한다.

결혼에 관한 어거스틴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 수도원의 시작은 기독교 금욕에 숨겨져 있다는 프랑크의 지적처럼,⁴⁷⁾ 어거스틴의 결혼관은 그의 금욕적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어거스틴은 결혼의 사회성과 인간관계의 본질적 중요요소를 긍정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같은 어거스틴의 결혼관은 결혼한 부부를 향해 성관계의 자제와 절제를 강력히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다분히 그가 추구하는 금욕주의적 독신생활을 권장함과 아울러 결혼은 단지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격정에 양보한 것이라는 그의 기본인식이 투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V. 나오는 말

46) *De Bono Conjugali*, 6.

47) Karl Suso Frank, op. cit., 15.

금욕주의적 독신의 우위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확고한 신념은 그의 결혼관 논의의 출발점이다. 우선 어거스틴은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서 세워진 성례적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결혼을 독신 곧 “거룩한 동정”과 비교할 때 열등한 생활방식이며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간주한다. 어거스틴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그의 회심체험을 통한 신앙적 삶의 고백적 결단이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 곧 어거스틴은 왜곡된 그의 의지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다짐으로 금욕적 삶을 결단했다. 이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랑(uti)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다운 목적으로 하는 사랑을 향유(frui)한 어거스틴이 저급한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의 욕구를 극복하는 경건한 성도로서 살고자 결단한 것인데, 바로 이 점에 대한 강조가 그의 금욕주의적 독신 생활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욕주의적 독신 생활을 통해 자신의 생을 진지하게 반성한 어거스틴이기에 그가 펼치는 결혼관 또한 금욕주의적 특성이 흠뻑 자리한다. 곧 어거스틴은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기본 전제로 하여 혼전 순결의 절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결혼한 이후에도 과도한 성관계의 자제를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의 결혼관은 금욕주의적 독신생활의 우위성의 빛에서 이해되는 것으로서, 결혼은 단지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격정에 양보한 것이라는 그의 기본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혼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 완고한 듯한 입장은 급격한 가족 해체의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결혼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결혼한 부부가 가져야 할 엄숙하고 경건한 사랑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더불어서, 결혼이 인간 육체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성사(聖事)라는 어거스틴의 관점은 결혼과 교회생활을 연결시키는 신앙적, 사상적 매개를 형성하는 모티프(motif)를 가져온다고 평가된다.

〈참 고 문 헌〉

- Augustine, *Confessions*, VIII. 12. 30., in *NPNF*.(Schaff, Philip.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Buffalo: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6) vol. I.
- _____. *De Bono Conjugali*. in *NPNF*. vol. III.
- _____. *De Bono Viduitatis*. in *NPNF*. vol. III.
- _____. *De civ. Dei*. in *NPNF*. vol. II.
- _____. *Contra Faustum Manichaeum*. in *NPNF*. vol. IV.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in *NPNF*. vol. II.
- _____. *De lib. arb.* III. vi. 18., in *LCC*.(Albert C. Outler e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vol. VI.
- _____. *De Nuptiis et Concupiscentia ad Valerium*. in *NPNF*. vol. V.
- _____. *De Oridine*. in *LCC*. vol. VI.
- _____. *Sermons* in John E. Rotelle ed. *The Works of Saint Augustine*(New York: New City Press, 1955)

- vol. III.
- _____. *De Virginitate*. in *NPNF*. vol. III.
- Baasten, Matthew. "Humility and Modern Ethics." *Reformed Review* 38(1) (1987): 232-237.
- Bigham, Thomas J., and Albert T. Mollegen. "The Christian Ethic." Roy W.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 Boettner, Loraine. *Roman Catholicism*. New Jersey: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3.
- Clark, Elizabeth A. "Theory and Practice in Late Ancient Asceticism."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5(2) (1987): 25-46.
- Frank, Karl Suso. *Geschichte Des Christlichen Monchtums*. 최형걸 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 Herbemann, Charles G. *The Catholic Encyclopaedia*. vol. xii. New York: The Universal Knowledge Foundation Inc., 1913.
- Lawless, George. *Augustine on Hippo and His Monastic Ru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Lotze, J. *Die drei Stufen der Liebe*. Frankfurt: Joseph Knecht Verlag, 1971.
- Placher, William C.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 Roberts, David E. "The Earliest Writings." Roy W.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

- 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 Rousseau, Philip. "The Spiritual Authority of the 'Monk-Bishop' Eastern Elements in Some Western Hagiography of the Fourth and Fifth Centuries." *Journal Theological Studies* 22 (1971): 380-419.
- Tillich, Pau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8.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 Zumkeller, A. *Augustine's Ideal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86.
- Zumkeller, A. *Praeceptum*. 이형우 역.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왜관: 분도출판사, 1990.
- 이규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 서울: 쿤란출판사, 2001.
-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1995.